

기관을 침범한 고분화 갑상선암종의 수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태 경·이용섭·이현창*

목적 :

고분화 갑상선암은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이나 10~15%에서는 국소침범 소견을 보인다. 재발율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병변의 완전제거가 중요하나, 기관을 침범한 경우 절제범위와 수술방법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 저자들은 기관을 침범한 고분화 갑상선암종에서 수술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술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5년부터 2005년 12월 까지 11년간 한양대학교 이비인후과에 수술을 시행받은 고분화 갑상선암종 환자 348명 중 기관 침범을 보였던 23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침범 정도와 수술방법, 방사성 요오드 치료, 수술 후 재발여부 등에 대해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

고분화 갑상선암 348례 중 유두상암은 318예,

여포상암은 30예였으며, 기관 침범을 보였던 환자는 23예(6.7%)로 유두상암 22예, 여포상암 1예였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8명과 15명이었고, 평균 연령 55.7세, 평균 추적기간 48개월(8~142개월)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이 시행되었고, 후두기관 침범에 대해서는 shaving 술식 19예, 완전절제술이 4예 시행되었다. 술 후 재발한 환자는 6명(26%)이었으며 국소재발 3예(13%), 경부림프절 재발 4예, 원격전이가 1예 있었으며, 국소재발한 환자들은 모두 기관연골을 침범하여 shaving 술식으로 연골 일부를 제거한 경우였다. 국소침범이 없었던 환자들의 생존율은 99.0%였고, 기관침범 환자군에서는 54.7%였다. 결론 기관을 침범한 고분화 갑상선암종의 경우 병변의 완전절제가 국소 재발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술식이라 사료된다.